

## 2020- 4 월호기쁨의 언덕으로 원고

저자: 김기천 목사(Rev. Kee Cheon Kim), 알버커키 연합감리교회(Korean UMC in Albuquerque), New Mexico

### <인도자용 소그룹 교재>

@ 날짜: 4월 5일 종려주일

# 제목: 나귀타신 예수님

# 본문: 스가랴 9:9, 마태복음 21:1-11

# 찬송가 3곡

햇빛을 받는 곳마다 138장(통52장)

호산나 호산나 141장(통132장)

오 영원한 내 주 예수 139장(통128장)

# 여는 질문 60-80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짐 때문에 고생했던 일이 있으면 함께 나눠봅시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짐이 되었던 경우가 있으면 나눠봅시다.

[가장 흔한 짐은 이삿짐이지요. 짐은 많은데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고생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미국에 이민 왔을 때에 영어가 안 되어서 작은 것조차도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경우 등 다른 사람에게 짐이 되었던 경험들을 나누어봅시다.]

# 본문 이해

예수님이 오시기 약 500년 전에 이스라엘은 패망한 가운데에 백성들은 페르시아 왕 다리우스 통치 하에 포로생활을 하거나 피난 생활을 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벽과 성전은 참혹하게 무너져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말씀하셨던 스가랴 9:9절을 보면 “시온의 딸아 크게 기뻐할지어다”로 시작합니다. 시온은 예루살렘 성읍이 세워진 터였던 시온 산을 가리킵니다. 그래

서 시온의 딸이라는 표현은 예루살렘에 남아 비참하게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지요. 폐허 속에서 살고 있는 이들에게 크게 기뻐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이들을 예루살렘의 딸이라고 부르면서 즐거이 노래를 부르라고 하십니다.

예루살렘의 큰 기쁨은 곧 왕이 임하실 것이기 때문이지요. 예루살렘을 떠났던 왕이 다시 오신다는 것이지요.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것이라고 합니다. 그 왕은 높은 산을 낮추시고 낮은 골짜기를 높여 주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왕이 오시는 목적은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그분은 겸손하셔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데 나귀를 타고 오신다고 합니다. 그것도 나귀새끼를 타고 말입니다. 나귀는 요즘에 트럭과 같이 당시에 주로 짐을 실는데 사용되는 짐승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왕이 입성을 할 때에는 말을 타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나귀새끼를 타고 오시는 것에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왕이시기는 하지만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목적은 무거운 짐을 실은 나귀처럼 세상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안에서는 이 죄의 짐 때문에 온갖 고초를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인류의 죄의 짐을 해결하셨지요. 스가랴는 이 예언의 말씀을 받아 선포했고 500여 년이 지난 후 그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실현되었습니다.

#### # 말씀 속으로

1. 예수님은 왜 나귀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습니까? (마21:4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라는 구절에 의하면 구약의 예언(스가랴 9:9절)을 성취하시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예언의 내용은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온에 딸에게 왕이 임한다”는 표현은 예수께서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또한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메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라는 표현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께서 나귀를 타실 것을 예언한 말씀이지요.]

2. 본문에서 나귀의 역할을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마21:5절)

[“나귀 곧 멍에 메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예수님 당시 나귀는 짐을 싣는데 사용되는 짐승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왕이 입성할 때에는 말을 타고 들어오지요. 말은 사람을 태우는 교통수단이라고 하면 나귀는 짐을 싣는 운송수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 나귀는 인류가 짊어져야 할 죄의 짐을 예수께서 대신 지신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 삶 속으로(적용 질문 2개, 40-80자 이내:1-2줄, 말씀을 칭의/성화/은혜 실생활에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질문)

1. 내 죄의 짐을 짊어지신 예수님께 더 이상 부담을 드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이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도 예수님께서 짊어지셨음을 깨닫고 회개함으로 나도 크리스천이 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아직도 죄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매순간 십자가 앞에서 나의 죄가 무엇인지 고백하고 죄를 버리고 멀리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크리스천은 죄에 민감한 사람들이지요.]

2. 인생의 짐으로 힘들어 하는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예수님을 닮는 크리스천으로서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은 나대신 죄의 짐을 짊어지심으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타신 나귀조차 예수님을 짊어지고 예루살렘으로 모셨지요. 크리스천은 주변에 힘들어 하는 사람들을 구경하거나 지나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크리스천은 예수님을

답아 이웃에게 도움이 되고 격려가 되며 위로가 되는 사람들이지요.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크리스천입니다. 그래서 가까이 있는 사람들 가운데 어려운 사람이 있는지 살펴보고 도와야 하지요.]

#### # 암송 구절

마 21:5 “시온에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메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 # 자녀와 나눔

1. 성경에 나귀새끼가 예수님을 섬길 때 무엇이 가장 힘들었을까요?

[누구에게나 교회생활을 하는 데에 어렵고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에 본문에 나귀새끼를 목상합니다. 나귀새끼는 어린 짐승입니다. 그 어린 짐승이 예수님을 태우고 예루살렘까지 걸어가려면 힘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나귀새끼는 예수님을 모신다는 생각에 기쁨으로 예루살렘까지 갔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나귀새끼처럼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제자들이나 무리들은 예수님께 겔옷이나 나뭇가지를 드렸습니다. 나는 무엇을 예수님께 드릴 수 있나요?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실 때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하기 위해 감사와 기쁨의 표시로 자신들의 겔옷과 나뭇가지를 드렸습니다. 겔옷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 가운데 하나였고 나뭇가지는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것이었지요. 우리 자녀들도 종려주일에 우리에게 다가오신 예수님을 환영하기 위해 무엇이든 드려야 합니다.]

-# 기도제목 나눔 (함께 기도하는 시간)

-# 찬양/헌금/헌금기도/주기도

@ 날짜: 4월 12일 부활주일

# 제목: 달리는 두 여자

# 본문: 마태복음 28:1-10

# 찬송가 3곡

무덤에 머물러 160장(통150장)

예수 부활했으니 164장(통 154장)

주님께 영광 165장(통155장)

# 여는 질문 60-80자

기대하고 소원하던 것이 이루어졌던 일이 있으면 나누어봅시다. 혹시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너무도 좋은 일이 일어났던 경험이 있으면 나누어봅시다.

[누구나 기대하는 일 또는 크고 작은 소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정, 학교, 직장, 기업에 관련된 나의 소원들을 나누어봅시다. 또한 그런 소원들 가운데 이루어진 경우를 나눕니다.]

# 본문 이해

안식일이 지난 후 다음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제자들이 있는 곳을 향해 정신없이 달렸습니다. 너무 놀라고 기뻐서 마음속에는 부활하신 예수님 생각밖에 없었지요. 무덤을 찾아 올 때 만 해도 무덤에 계신 예수님 생각에 슬픔과 좌절에 빠져 걸어 올라왔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를 만난 후에는 슬픔, 좌절, 고통, 번민 등은 모두 사라져 버리고 감격, 감동, 기쁨으로 마음이 가득 찼습니다.

불과 이틀 전 예수께서 온갖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고 로마 군인의 채찍에 맞으며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이 여인들은 날이 저물어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려 동굴로 된 자기의 무덤에 들 때에까지 예수님의 시신을 따라갔습니다. 너무도 엄청난 사건에 이 여인들은 깊은 슬픔에 빠져 밤새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지요. 다음날 안

식일에는 유대인들의 안식일 규례 때문에 무덤에 찾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삼 일째 되던 날 우리 달력으로 일요일 새벽 일찍 여인들이 무덤에 왔을 때에 큰 지진이 일어나면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무덤 돌문을 굴러놓고 그 돌문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천사는 그 모습이 번개같이 빛이 나고 그 옷은 흰 눈 같은 색이었습니다. 이 일을 본 경비병들은 무서워 떨며 죽은 사람처럼 몸이 굳어버렸지요. 물론 이 광경을 지켜보던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도 무서워하며 떨고 있었습니다. 천사는 여인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고 위로하고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며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라고 했지요. 무덤에서 나갈 때에 부활하신 예수께서 여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여인들이 부활의 주를 경배하자 예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위로하시면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보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 지금 두 여인이 감격하면서 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 # 말씀 속으로

1.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어디를, 무엇을 하러 찾았습니까? (1절)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새벽에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보러 간 것이 아닙니다. 이 여인들은 무덤에 묻히신 예수님이 걱정 되서 찾아간 것이지요.]

2. 무덤에 나타난 천사는 여인들에게 무슨 소식을 알려주었습니까? (5-7절)

[무덤가에서 나타난 천사는 여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찾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5절). 즉 여인들은 죽으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무덤에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천사는 예수께서 부활하셨다고 알려주었습니다(6절). 여인들은

기대도 하지 못했던 좋은 소식을 천사로부터 듣게 된 것이지요.]

#### # 삶 속으로

1. 예수님의 부활 소식이 나에게는 어떤 감동과 변화를 주고 있나요?

[부활로 인해 인류에게 죽음이 끝이 아니며 죽음 후에 부활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결국 부활 소식은 죽음을 극복한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알리는 선포라는 점이 우리에게 커다란 감동을 줍니다. 또한 사람들은 인생에서 실패와 좌절과 절망을 끝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기쁜 소식은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시면 실패에서 다시 성공할 수 있고 좌절에서 다시 도전할 수 있으며 절망에서 다시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인생의 새로운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2. 제자들에게 부활 소식을 전하기 위해 달리는 여인들처럼 나는 이 소식을 전하러 누구에게 달려가야 하나요?

[주변에 인생의 실패와 좌절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부활의 희망을 전해야 합니다. 또한 인류가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이라는 늪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하여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다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본문에 달려가는 여인들처럼 우리도 빨리 달려가서 부활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 # 암송 구절

마태복음 28:6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 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 # 자녀와 나눔

1.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제자들이 들으면 기뻐할 소식을 전했습니다. 부모님이 들으시면 기뻐하실 어떤 소식이 나에게 있나요?

[자녀들은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먼저 부모님들이 무엇을 기대하는지 알아

야겠지요. 알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대를 실천하고 이루어드리는 것이 부모님이 기뻐하실 소식입니다. 나의 부모님들은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 알아봅시다.]

2. 성경에 두 여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자 몸을 굽혀 경배했습니다. 나는 어떻게 부모님을 존경하며 정성껏 섬길 수 있나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높으신 분은 하나님이고 가정에서 가장 높으신 분은 부모님입니다. 하나님께 찬양하듯이 항상 부모님께 감사와 사랑의 표시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듯이 부모님과 대화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듯이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드려야합니다.]

-# 기도제목 나눔 (함께 기도하는 시간)

-# 찬양/헌금/헌금기도/주기도

@ 날짜: 4월 19일(일)

# 제목: 오해가 부른 멸망

# 본문: 사무엘하 10:1-12

# 찬송가 3곡

너 시험을 당해 342장(통395장)

인내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367장

나는 갈길 모르니 375장(통421장)

# 여는 질문 60-80자

오해를 해서 곤란했던 일이 있으면 서로 나눠봅시다. 아니면 오해를 당해서 황당했던 일이 있었으면 서로 나눠봅시다.

[오해라는 것이 일상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학교, 직장, 사업에서 심지어는 가정에서도 식구끼리 오해가 생기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가까운 친구

라고 할지라도 오해가 생기면 관계가 깨지기도 하지요. 누구나 한번은 오해를 했거나 오해를 당한 경우가 있으면 나누어봅니다.]

#### # 본문 이해

람바는 암몬의 왕이 살던 최고의 도시였습니다. 다윗의 군대는 암몬의 수도 람바를 정복하고 암몬에 모든 금은보화들을 탈취합니다. 큰 도시 람바에서 권세를 부리며 살던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지배하에 톱질, 썬레질, 철도끼질, 별돌구이 등을 하면서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암몬은 왕권의 몰락, 수도의 함락과 함께 나라가 망하고 이후 암몬 백성들은 비참한 삶을 살게 된 것이지요.

암몬의 몰락은 자신들의 오해로 인해 초래된 결과입니다. 다윗은 천하를 통일하고도 암몬은 공격하지 않았습니니다. 이유는 다윗이 암몬 왕에게 받았던 은혜가 있었기에 은혜를 갚고자 하는 마음으로 암몬을 그대로 놓아두었지요. 그러다가 암몬의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된 다윗은 자신이 받았던 은혜를 갚고자 암몬 왕의 장례식에 자신의 신하들을 보냅니다.

오해는 암몬의 신하들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다윗의 신하들이 조문을 온 것을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았지요. 다윗이 천하를 정복할 정도로 세력이 커지자 암몬에게 이스라엘은 커다란 위협이 되었지요. 그 위협적인 나라 이스라엘에서 장례 조문을 온 것을 정탐하러 온 것이라고 오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암몬의 신하들은 왕 하눈을 찾아가서 다윗이 보낸 신하들은 스파이들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눈이라도 오해를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암몬 왕 하눈도 다윗의 신하들을 스파이라고 여기고는 그들의 수염을 절반만 깎아 버리고 신하들의 바지를 엉덩이까지 잘라서 돌려보냈던 것이지요.

암몬의 선친 왕에게 은혜를 갚으려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신하들을 장례 조문하러 보냈는데 암몬의 후임 왕 하눈이 오해함으로 다윗의 신하들은 큰 모욕과 수치를 당했습니다. 이 오해로 인해 이스라엘과 암몬과의 전쟁이 시작되었고 결과

적으로 암몬은 처참하게 무너져 버렸습니다.

#### # 말씀 속으로

1. 다윗이 암몬 왕의 장례식에 신하를 보낸 이유는 무엇입니까? (2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하눈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새로 암몬의 왕이 된 하눈의 아버지는 나하스입니다. 나하스가 죽자 아들 하눈이 왕이 된 것이지요. 나하스는 생전에 다윗에게 은혜를 베푼 적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 일을 기억하고 은혜를 갚기 위해 나하스의 장례식에 조문하라고 신하들을 보낸 것이지요.]

2. 암몬의 신하들은 다윗의 신하들을 어떻게 오해했습니까? (3절)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이까” 암몬 왕의 장례식에 다윗의 신하들이 나타나자 암몬 왕 하눈의 신하들은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을 침략하기 위해서 염탐하러 왔다고 오해하였습니다.]

#### # 삶 속으로

1. 크리스천은 다윗처럼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갚으려는 사람이지요. 나는 잊고 있는 은혜가 있습니까? 또한 그 은혜를 갚으려고 합니까?

[은혜와 사랑은 같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곧 사랑을 받았다는 것이지요. 살면서 사랑을 받은 적이 있다면 곧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또한 내게 절실하게 도움이 필요할 때 나를 도와준 사람은 내게 은혜를 베푼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과 은혜를 받았지만 또한 태어나면서부터 가족과 이웃으로부터 사랑과 은혜를 받아왔지요. 이런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갚으며 살아야 합니다.]

2. 암몬은 오해함으로 멸망을 초래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생기는 오해를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요?

[오해는 사람 관계에서 많은 피해와 상처를 남깁니다. 그래서 크리스천들은 오해를 하지 말고 서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오해는 내가 기준이 되고 중심이 될 때 일어나는 것이라면 이해는 상대가 기준이 되고 중심이 될 때 되는 것이지요. 오해를 피하는 방법은 이해하는 것입니다.]

# 암송 구절

사무엘하 10:2 “...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하눈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풀 것 같이 하리라...”

# 자녀와 나눔

1. 다윗 왕은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부모님께 받은 어떤 은혜를 기억하고 있나요?

[다윗은 받은바 은혜를 기억하고, 표현하고, 갚는 사람이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어떤 사랑을 받고 있는지 부모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부모님을 사랑하고 감사한다면 표현할 줄 알아야 하고 또한 사랑과 은혜에 보답할 줄 알아야 합니다.]

2. 친구 중에서 오해를 잘 하는 사람은 누군가요? 반대로 나를 잘 이해해주는 사람은 누군가요?

[자녀들은 학교생활을 하면서 오해하는 친구를 만날 수도 있고 이해해주는 친구를 만날 수도 있지요. 오해하는 친구는 관계가 불편하며 이해해주는 친구는 서로 관계가 편안합니다. 만일 오해를 받은 경우에는 솔직하고 지혜롭게 행동하면 오해를 풀 수 있습니다.]

-# 기도제목 나눔 (함께 기도하는 시간)

-# 찬양/헌금/헌금기도/주기도

@ 날짜: 4월 26일(일)

# 제목: 구원 소식을 전하는 이들

# 본문: 사무엘하 17:15-22

# 찬송가 3곡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498장(통275장)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499장(통277장)

빛의 사자들이여 502장(통259장)

# 여는 질문 60-80자

편지를 배달하는 분들이 당하는 어려움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요즘 우체국에 가보면 개조심 포스터가 있습니다. 우체부 아저씨가 개에게 물리는 경우가 많은가 봅니다. 편지를 배달할 때에 여러 문제가 발생합니다. 주소가 잘못되어 편지가 되돌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우편물이 배달 도중에 분실되어 배달 사고가 생기기도 하지요. 이와 같이 편지나 소포에 관련된 경험들을 나누어 봅니다.]

# 본문 이해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는 사람들의 눈을 피하여 예루살렘 성 밖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성에서 어떤 여종이 나와서 이들에게 위험에 빠진 다윗을 구원할 소식을 알려주었지요. 이것을 한 청년이 보고 압살롬에게 알렸습니다. 압살롬의 종들의 추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는 다윗에게 소식을 전하기 위해 빠른 속도로 달려갔습니다. 압살롬의 종들의 추격이 가까워지자 이들은 어떤 사람의 집 우물 속으로 들어가 숨었지요. 그 집 여인은 그 우물 입구 위에 짚은 곡식들을 널어서 우물인지 전혀 알 수 없게 위장했습니다. 압살롬의 종들이 그 집까지 와서 요나단과 아히마아스에 관해 묻자 그 여인은 그들이 이미 시내를

건너갔다고 말했습니다. 압살롬의 종들은 계속해서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를 찾았지만 결국 찾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압살롬의 종들이 떠나자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는 우물에서 올라와서 다윗 왕에게 후세의 정보를 전했습니다. 밤중이 되어 소식을 듣게 된 다윗은 자다가 일어나서 요단강을 건넌으로 위험에서 벗어나게 되었지요.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는 다윗을 구원하기 위해 소식을 전하는 것이 위험한 사명임을 알면서도 생명을 아끼지 않고 성공적으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요나단과 아히마아스의 이야기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받은 우리 크리스천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아직도 세상에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르고 어둠 속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들에게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라고 명령하셨지요. 때로는 복음을 전하려다가 생명을 위협당하는 위험에 처할 수가 있지만 그럼에도 요나단과 아히마아스처럼 중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물 속에 숨어야 하듯 우리도 복음 전파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참고 기다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 # 말씀 속으로

##### 1. 후세가 다윗 왕에게 전하라고 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16절)

[“다윗에게 전하기를 오늘 밤에 광야 나루터에서 자지 말고 아무쪼록 건너가소서 하라 혹시 왕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몰사할까 하노라 하니라” 갑자기 피난을 떠나 지친 다윗 왕은 광야 나루터에서 쉬고 있었지요. 문제는 아히도벨이 피난하는 무리들을 추격하여 그날 밤에 다윗 왕을 죽이려는 계략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후세가 다윗 왕에게 빨리 강을 건너 도망하라는 소식을 전한 것이지요.]

## 2. 후세의 소식을 전해들은 다윗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22절)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새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후세의 소식을 전해 듣자 다윗 왕은 지체 없이 그 즉시로 일어나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다윗 왕과 함께 피난 가는 무리들이 새벽까지 건넜다고 하니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암살품의 반란을 피하여 도망친 것입니다. 이렇게 즉각적으로 반응한 다윗의 피난 무리들은 죽음의 위협에서 생명을 구한 것입니다.]

### # 삶 속으로

1. 자신이 위험해 빠진지 모르고 잠들었던 다윗처럼 지금 내 주변에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피난길에 지친 다윗처럼 우리 주변에도 인생길에 힘들고 어려워 지쳐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단강이 앞을 막고 있어서 머물러 있는 다윗처럼 우리 주변에 인생의 장애물 때문에 좌절한 사람 포기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는지 또 그 사람들의 형편이나 상황이 어떤지 찾아보아야 합니다.]

2. 나는 주변에 사망의 위협에 빠진지를 모르는 영혼들에게 무슨 소식을 전해 주어야 할까요?

[후세의 소식이 다윗을 구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주위에 지쳐서 잠들어있는 영혼들을 찾아가서 복음으로 그들을 깨워야 합니다. 복음으로 그들을 죽음에서 구원해야 하지요. 절망하는 영혼들을 보고도,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 # 암송 구절

사무엘하 17:18 “... 그 두 사람이 빨리 달려서 바후림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의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내려가니...”

## # 자녀와 나눔

1. 요나단과 아히마아스처럼 나도 복음을 전할 때 같이 다닐 수 있는 친구가 있나요?

[일을 할 때 혼자 하는 것보다 둘이 함께 하는 것이 더 좋은 점들을 찾아봅시다. 복음을 전할 때에도 혼자 하는 것보다 둘이 함께 하면 무엇이 좋은지 알아봅시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전도하려 보낼 때에 둘씩 짝을 지어서 보냈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복음을 전하는 전도하는 자녀들이 되어야 하고 또한 믿음의 친구를 가질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2. 소식을 전하는 요나단과 아히마아스에게 어려움이 있었던 것처럼 나는 전도할 때 무엇이 어려울까요?

[전도하려면 먼저 전도할 내용인 그리스도의 복음을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실제로 전도를 하려면 당황스러운 일, 위험한 일 등을 당할 수가 있기에 요나단이나 아히마아스처럼 지혜롭게 행동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전도를 할 때에 성령께서 나와 함께하시고 나를 도우신다는 믿음이지요.]

-# 기도제목 나눔 (함께 기도하는 시간)

-# 찬양/헌금/헌금기도/주기도